



# 역사속의 독도지킴이 역할극1



( )학년 ( )반 ( )번 이름 ( )

다음의 역할극 대본을 보고, 모둠에서 역할을 정하여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.

## < 우산국을 굴복시킨 이사부의 지혜 > 역할극 대본(1모둠-4인)

**해설:** 이사부는 하슬라주(강릉)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우산국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 시키기는 어려워 애가 탔다.

**이사부 :** 우산국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어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구나.

**신하1:** 그렇사옵니다. 장군님. 저자들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항복할자들이 아니어서 큰일입니다.

**이사부 :** 음~ 힘으로 안된다면..... 울커니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. 이리와 보거라

**이사부, 신하1, 신하2:** 쑥덕쑥덕 , 이러쿵 저러쿵 (귓속말로 속닥속닥)

**신하2:** 장군님,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우산국으로 배를 띄울까요?

**이사부 :** 그래. 내가 이른대로 배에 사자를 나무로 만들어 실었겠지?

**신하1:** 네, 북과 나각도 준비하여 사자 소리를 내게 하였고, 주둥이 부근에서는 화염도 뿜을 수 있게 준비하여 두었습니다.

**해설:** 나무로 만든 사자를 뱃머리에 여러마리를 둘러두고 우산국으로 배는 떠났고, 드디어 우산국에 당도하게 되었다. 이사부 장군은 큰 소리로 외쳤다.

**이사부:** 우산국 백성은 듣거라.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사자들을 모두 풀어서 너희 우산국을 쑥대밭을 만들겠다.

**해설:** 사자 주둥이에 불을 붙여 내뿜게 하고, 북과 나각으로 괴물 소리를 내니 처음 보는 무서운 광경과 소리에 우산국 사람들은 모두 놀라 당황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다.

**신하2:** 하하하.. 우산국 백성들이 모두 항복을 외치고 있습니다.

**신하1,2 :** 지혜로우신 이사부 장군님 만세!!



**태장군**  
**(신라장군 이사부)**  
 신라시대 복장을 착용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이미지를 밝고 명랑하게 표현함



# 역사속의 독도지킴이 역할극2



( )학년 ( )반 ( )번 이름 ( )

다음의 역할극 대본을 보고, 모둠에서 역할을 정하여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.

## < 안용복의 독도 사랑 > 역할극 대본 (4~5인 1모둠)

**해설:** 동래지역의 어부인 안용복과 박어둔을 비롯한 몇 명의 어부들은 곧잘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해오고 있었다. 오늘도 울릉도 부근으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.

**안용복:** (흥분해서) 아니, 이보게 저것들을 좀 보게나. 오늘도 일본 어부들이 저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군. 안되겠네. 내 오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.

**조선어부1 :** 맞아. 그렇게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말라고 일렀거늘.. 네 이놈들!!

**안용복, 어부1:** 이놈들.. 이곳은 조선 땅이니 썩 물러가라. 어서!!

**일본어부 :** 무슨소리! 이곳은 우리가 고기잡이를 하던 곳이다. 일단 이들을 오키섬으로 잡아가자.

**해설:** 여러명의 일본어부들에 의해 안용복 일행은 일본 오키섬으로 잡혀가게 되었다.

**안용복:** 이보시오.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며 남의 땅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은 일본 어부들이오. 이렇게 나를 잡아오면 안되는 것이란 말이오. 앞으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해주소.

**일본관리:**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,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. 우리 관백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(서계)를 작성하여 드리리다.

**해설:** 그러나 막부의 서계는 조정에 전해지지 못하고 대마도주에게 빼앗기게 되었고, 안용복은 몇 년후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엄중하게 항의하였고, “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”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 냈다.



안용복  
(민간외교관 안용복)